

손 끝의 아카이브

우아름(미술비평)

살아있는 것들은 매 순간 세상에 흔적을 남긴다. 무수히 많은 생이 생성한 흔적들을 헤아리려 하면 세상에 하고많은 것들이 연달아 떠오른다. 물난리와 산사태, 바다의 모래 알갱이와 해변의 조개껍질들의 이미지. 그만 아득해지고 만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저마다의 생을 다하면 사라진다. 물질적 흔적이 사라지고, 그것을 기억하던 누군가의 마음들도 사라지면 완전히 잊혀진다. 무언가를 끝까지 헤아릴 수 없다는 자각과 눈앞의 무엇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은 공포와 무력감을 준다. 이러한 무력감을 얼마간 완화하는 데 아카이브의 효능이 있다.

아카이브는 세상에 무수히 흩어진 하고많은 것들을 총체적인 질서 아래 분류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하여 모든 것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 그 환상 안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와 분명하게 식별되는 자리를 차지한다. 약재상의 서랍처럼, 트리 구조로 위계가 정렬된 폴더 속 파일들처럼. 무언가를 변치 않는 상태로 보존해 언제라도 꺼내어 보는 환상 속 이미지다.

반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상 하나하나의 실체감은 흐려진다. 한때는 세상 어딘가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붙어있던 물질적 흔적이나 누군가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던 기억들이 발췌되어, 세상의 흐르는 시간과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고 사진 찍혀 식별 가능한 분류 체계 안에 자리 잡는다.

세상의 조각들을 아카이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은 추상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생 그 자체다. 박선호의 작업은 아카이브가 작동시키는 추상화의 과정 중에 얇아지는 생과 기억의 두께를 회복하는 여정이다. 대상의 흔적을 쫓는 리서치-여행, 자료를 어루만지는 감응의 손짓, 그리고 이야기로 매는 방법을 통해서다.

감응의 고고학

박선호는 세상을 일단은 마음껏 구경하고,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핸드폰 사진과 메모로 기록해둔다. 이렇게 구성된 생각의 파편들은 가끔 박선호의 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의 파편이 어떻게 모여 하나를 이루지, 혹은 벼려질지, 몇 갈래로 갈무리될 생각들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적당한 때가 되면 메모와 이미지들은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작업에 앞서 작가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 곳들을 열심히 다닌다. 그곳은 남대문지하상가의 우표상이기도 하고, 고래를 보러 떠난 여행지의 벳길이기도 하다. 그리고는 익숙한 작업대로 돌아와 리서치 행보 중에 수브니어처럼 수중에 들여온 것들을 만져보며 조금씩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박선호의 화면에는 손이 자주 등장한다. 기록물을 만지는 손짓이다. 우표상이 내어준 엽서 상자의 빼곡한 더미에서 엽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이미지를 비추어주는 손가락이고(〈열록-1: 터치(Stain-1: Touch)〉, 2019), 여행 기념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치는 손이자 사진에 담긴 산의 능선을 먹지에 대고 연필로 눌러 그리는 손가락이다(〈금강-블루프린트(Blue Print)〉, 2019). 사진 앨범을 펼쳐 놓고 여러 각도에서 출현하는 손들이다(〈사간의 빛(In the glare

of Sagan)》，2021). 여러 작업에서 자꾸만 등장하는 손들을 보며 자료를 다루는 일, 매만지고 매듭지어 엮어내는 일에 수반되는 감응의 요소에 시선이 고인다. 이 감응은 무엇에 접촉하여 일어나는가?

그간 박선호가 주제로 다루어 온 것들은 먼 데 있는 것들이었다. 금강산이나 고래와 같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지의 영역에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들이다. 미지의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 남대문 지하상가의 고려우표사나 작가가 고래를 보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승선했던 배와 같은 중간 장소들이 등장하곤 했다. 근래에 작가는 좀 더 가까운 대상에 집중한다. 그것은 엄마의 생이다. 엄마는 먼저 태어나 앞선 시대를 살다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선배 여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얼굴이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엄마와 딸은 평행한 여성이다. 두 사람을 휘감는 시간과 시대성이 다르기에 엄마라는 가까운 대상은 추적할 만한 존재가 된다. 전시 『Combination!』에 선보이는 세 작품 〈AB 사이드(AB Side)〉(2021), 〈퍼우즈(Pause)〉(2022), 〈큐마커(Cue Marker)〉(2022)에서는 대상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시간적 거리는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다른 효과를 마주할 수 있다.

마음의 고고학

작가는 1980년대의 신문의 기사와 광고, 여성잡지를 들여다본다. 철 지난 매스미디어에 떠도는 이미지와 말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꿈꾸었던 미래에 관한 욕망을 알려준다. 〈AB 사이드〉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퍼포머의 손짓에 의해 교차하며 재생된다. 테이프 앞면에 녹음된 1980년대 금성사의 광고에는 당시의 광고 매체가 선도하려 했던 새 시대 여성상과 혁신적인 미래상이 담겨있다. 광고 카피를 읊는 성우의 목소리와 배경음악에는 희망찬 미래가 곧 도래할 것만 같은 기대감과 활기가 녹아 있다. 반면, 테이프 뒷면에는 당대를 살아가던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발췌해 읽는 목소리가 담겼다. 현실에는 언제나 희망과 좌절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발생하며 여러 단면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레코더의 재생 방향을 달리하는 퍼포머의 손짓으로 테이프 앞뒷면의 상반되는 이야기가 교차 재생되는 작품 〈AB 사이드〉는 바로 그 지점을 노출한다. 혁신 기술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도래할 풍요로운 21세기를 약속하는 금성사의 ‘테크노피아’ 광고의 언어가 실제 노동자 여성의 생활에 대한 증언과 교차하는 동안 관객은 과거가 꿈꾸었던 미래인 현재에 도달해, 금세 훌쩍 지나버린 시간과 그 시간이 변화시킨 감각에 둘러싸여 지난 열망을 마주하게 된다. 〈퍼우즈〉는 〈AB 사이드〉의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는 아카이브다. 여성, 기술, 가전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모은 1980년대 신문 기사 스크랩 자료, 특히 여성 프로그래머에 관한 기사들은 두 목소리의 간극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한다.

한편, 〈큐마커〉에서 작가가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카이브를 창작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뒤집는다. 『행복이 가득한 집』의 창간호부터 1980년대 발간 본들을 훑으며,

작가는 당시 처음으로 생겨나던 웰빙을 향한 신선한 욕구에 주목한다. 인테리어와 건강한 식단,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 행사 소식에는 생계유지 이상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다. 작가는 이번에는 리서치 과정을 통해 포착한 당대의 열망을 당시 유행했던 풍의 꽃꽃이 조각으로 재현한다. 언어로 전달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감각을 눈앞에 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아카이브는 원출처의 원칙과 같이 개별 자료의 기원을 중시하는 아카이브의 일반 질서를 무력화하며 언어로 분별할 수 없는 감각의 뎅어리가 된다.

작가에게 전달받은 작업 노트에는 “박선호는 ‘마음의 고고학’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획자의 말과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인)당시의 시대 상황이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기의 바퀴 자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작가의 말이 있었다. 두 사람의 말에 기대어 이 글을 마무리한다. 먼저 마음의 고고학에 관하여. 고고학은 남겨진 유형의 사물을 통해 사라진 무형의 정신을 추적해보려는 학문이다. 아카이브는 유형의 사물이 무형의 기억을 거쳐 결국은 소실되는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려는 의지적인 행위이다. 고고학과 아카이브는 언제나 세상을 손안에 든 것으로 파악하려는 지각 과정의 쌍을 이루어 왔으나, 그 지각의 회로는 자칫 손의 감각을 잊고 개념의 세계에 머물게 한다.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아 마음을 잊기 위해서는 대상에 손을 대 만져(touch)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박선호의 화면에는 자꾸만 손이 등장해 자료를 다루고, 어루만진다. 멀어지는 마음을 붙잡는다. 글쓰기에 앞서 가진 대화에서, 작가는 <AB 사이드>에 등장하는 레코더의 실물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전시장에 놓아두려 한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하며, 작가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마치 레코더가 실제로 거기 있다는 듯이.

그리하여, 감응해 움직인 마음의 효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생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전과는 다른 눈이다. 사람의 눈은 두 눈의 시차(視差)를 통해 대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박선호 작가의 작업 과정에 늘 존재하는 아카이브는 다양한 시차(時差)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게 한다. 그 눈은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남길 흔적의 궤도가 엄마의 삶이 내어왔을 바퀴 자국의 트랙과 조금 달라졌음을 인식하게 해 준다. 내 생만큼의 시차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눈에는 양안의 깊이가 서린다.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의 눈에 다시 담기는 일상의 풍경처럼, 그것은 전과 같아도 조금 다르게 보일 것이다.

우아름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한 후 미술 글쓰기를 지속해 왔다. 비평과 창작의 경계에서 작가의 조형 언어를 찾아주는 글을 쓴다. 이미지 아카이브를 연구했고, 예술의 사용과 창작 생태계 설계에 관한 관심으로 예술 대학의 레지던시와 기업의 혁신 센터 등에서 일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글과 말을 사용해 일한다. 최근 편저에 『우리가 되는 방법들(The Ways to Make Us)』(부산비엔날레 큐레이토리얼 워크숍 기록집, 2022), 『Yangachi Says』(미디어버스, 2021), 『밤이 낮으로 변할 때(Night Turns to Day)』(아트선재센터, 2020), 『프로포즈: 바람산연립하기』(쿱앤밀북스X김창재연립, 2020) 등이 있다.